

관광경험과 학습의 관계: 활동이론적 접근

전주형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Tourism Experience and Learning: Approach of the Activity Theory

Joo-Hyung Chun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요약 관광객은 타지역을 이동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는 수많은 사실과 만난다. 이때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삶에 대처하는 자신의 견해를 바꾼다. 이런 면에서 관광은 현장 적응적인 학습 방법의 하나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을 적용하여 관광지에서 겪는 경험과 학습의 관계를 분석했다. 활동이론의 분석단위는 관광활동의 주제, 목표, 공동체, 역할, 방법과 규칙, 성과물, 공동체와 관련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설사·안내자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관광객의 학습과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관광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경험은 해설사·안내자의 해설과 안내의 활동체계 단위는 물론이고 단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상호작용이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변화를 유도하여 관광객의 학습을 가능하게 만든다. 학습 내용은 안내자와 해설사의 역할이 커질수록 학습 가치도 올라간다는 점, 관광경험이 사회·문화적 차원의 학습 효과에 포함된다는 점, 활동체계 내 혹은 활동체계 간에는 상호작용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모순의 해결과정을 관광객이 스스로 찾는다는 점, 관광경험은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계층 구조와 네트워크 교차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활동과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이다.

키워드 : 관광경험, 활동이론, 해설사, 안내자, 관광학습

Abstract As tourists travel to other regions, they encounter numerous facts that conflict with their views. At that time, we change our view of coping with life. In this respect, tourism is a new way of learning. As a new learning method, tourism experience research is a new approach.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learning experienced in tourist destinations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activity theory. The analysis units applied in the activity theory were set as subjects, goals, communities, roles, methods and rules, outcomes, and relevance to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ommentators and guides wh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tourism experience to analyze the learning process of touris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s of tourists during the tour were interactive in various forms within the unit as well as the unit of the activity system of the commentator and guide. This interaction induces changes in the tourism experience activity system, enabling tourists to learn. The content is that the value of learning increases as the role of guide and commentator increases,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 of tourism experience is included in the learning effect, and the contradictions that arise from interactions within or between activity systems. The fact that they find the solution process themselves, and that tourism activity is not an isolated unit, but exists at the intersection of hierarchies and networks, is affected by the activities and environments of others.

Key Words : Tourist Experience, Activity Theory, Commentator, Guide, Tourism Learning

*Corresponding Author : Joo-Hyung Chun(amazingclub@naver.com)

Received January 18,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1

Revised February 18,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관광자는 관광지에서 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을 만난다. 이때 새로운 배움이 시작한다. 관광자가 배우는 것은 이색적인 것은 물론이고 역사적·문화적 사실과 인물을 포함하여 다양하다. 현지인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은 물론이고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신비로움과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포함된다. 이때 관광자는 자신이 가진 이해, 학습, 발견, 탐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적 성장, 삶의 지혜, 일반 지식은 물론 사회문화적 인식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것을 배운다[1].

관광자에게 배움이나 앎은 순탄하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낯선 곳에 도착한 관광자는 혼란스러움은 물론이고 당황함, 길 잃음과 불안함 등도 경험한다. 일상에서 흔히 겪지 못하는 것과 마주침으로 인하여 스스로 모순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점도 겪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관광자는 방문한 곳의 사회적 특성은 물론이고 자신의 한계도 알게 된다. 따라서 관광은 기존의 교육 방법과 차이가 있는 신선한 배움의 한 방법이다. 이 연구는 관광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학습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분석 단위를 설정하고 분석단위에서 관광경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내자·해설자의 활동체계 내용과 그에 따른 관광자의 학습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관광경험과 학습 그리고 해설사와 안내자의 역할 변화를 고찰하였다. 활동이론과 관련해서는 그 변천과 활동체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2. 문헌연구

2.1 관광경험

2.1.1 관광경험

관광은 타지역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경험이 가능하다. 특히 방문지의 전통, 풍습은 물론이고 현지인의 생활양식, 사회체계와 같은 문화사회적 요인이 포함된다. Cohen(2002)에 의하면 관광경험은 관광자가 현지인의 삶에서 문화적 고유성을 찾으려고 노력[2]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한다. 관광경험은 관광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상태[3]로 관광자가 가진 마음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관광경험은 관광하는 과정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세분화할 수 있다. 또 관광자 개인이나 관리자가 어떠한 점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연구에서 관광경험을 인지적 경험과 감성적 경험이 통합된 총체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4]. 문화적 고유성이 관광경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적·감성적·고유성 경험을 조합한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광경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과 다른 예기치 않은 것과 마주친다. 예상할 수 없는 우연히 만난 사건이나 상황일수록 경험이 많아진다. 관광은 우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낯선 곳에서 겪는 경험은 일상적 경험보다 강도가 높다.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광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감각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험 대상과 상황이 쉽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관광경험은 진정성도 높아진다. 관광경험이 일상 경험보다 그 가치가 높은 이유다. 셋째, 현지인과 만남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사회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접촉을 한다. 이것은 호기심 충족 이상을 넘는 경험이다. 새로운 문화를 전달받고 현지인과 상호 교류를 통해 신뢰를 증진한다. 사회에 폭 넓은 이해, 문화의 접촉 그리고 상호 신뢰 증진이 관광자를 성장시킨다.

첫째,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과 다른 예기치 않은 것과 마주친다. 예상할 수 없는 우연히 만난 사건이나 상황일수록 경험이 많아진다. 관광은 우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낯선 곳에서 겪는 경험은 일상적 경험보다 강도가 높다.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광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감각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험 대상과 상황이 쉽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관광경험은 진정성도 높아진다. 관광경험이 일상 경험보다 그 가치가 높은 이유다. 셋째, 현지인과 만남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사회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접촉을 한다. 이것은 호기심 충족 이상을 넘는 경험이다. 새로운 문화를 전달받고 현지인과 상호 교류를 통해 신뢰를 증진한다. 사회에 폭 넓은 이해, 문화의 접촉 그리고 상호 신뢰 증진이 관광자를 성장시킨다.

2.1.2 관광경험과 학습

관광경험은 기존의 학습방법, 내용, 연속성 등에서 새로운 학습방법이다. 그 근거는 첫째, 학습의 방법과 관련해서 전통적 학습이 가르침에 비중을 두었다면 관광에서 학습은 전통적 학습 방법을 탈피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가르치는 자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배우는 자가 받아들이는 형태였다. 이때는 가르치는 내용, 방법이 학습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가르침에 의한 학습이 중요했던 시대는 가고 스스로 배우는 학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1]. 관광에서 학습은 배움의 장소, 시간, 방법에서 기존의 학습 방법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방법이다. 둘째, 학습하는 내용에서 관광경험은 타인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찾아야 하는 학습 방법이다. 학습하는 자가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여 자기화할 때 효과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앎과 학습이 일어난다[5]. 셋째, 학습과 경험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에서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6]. 경험이 학습

의 필수적 요소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학습에 대한 능력과 관심에 없다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학습은 전인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성장은 지적·감성적·신체적 능력의 배양으로 이루어진다. 관광경험에서 일어나는 전인적 성장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의 자발적 동기와 의지, 곧 지적·정서적 관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광에서 일어나는 학습 내용에는 연구자에 따라 쾌락(hedonics), 평온(peace of mind), 기분전환(refreshment),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역문화(social interaction and local culture), 지식(knowledge), 관광지에서 배우는 것(learning), 즐거움을 주는 것(entertainment),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activities and special events), 서비스(quality of service), 자연 현상(physiography) 등이 포함된다[3,7-9].

2.1.3 관광 해설사의 역할

해설사(interpreter) 혹은 안내자(guide)는 근본적으로 같지 않지만 그 구별은 뚜렷하지 않다[10]. 해설사는 관광지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전문적 해설과 설명을 제공하는 자(관광진흥법)다. 또 안내자는 관광객에게 관광지 이동에 따라 여행 일정에 알맞은 안내에 중점을 두고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설명, 관광객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해설사·안내자가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의 의미와 가치를 관광객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현장 공급자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해설사·안내자는 관광객과 관광자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해설사·안내자가 없다면 관광자원은 이용할 수 없거나 이해되고 평가되지 않는다. 안내자·해설사에 의해 문화적·역사적·생태적 가치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사·안내자는 관광지의 특징들을 지각하고, 인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11]. 특히 해설사·안내자가 갖고 있는 관광지의 지리, 역사, 문화, 사회 등의 전문적 지식은 관광객에게 시야를 넓히거나 새로운 사고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관광자원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는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12,13]. 이런 점에서 관광은 이미 하나의 교육 방법이 되었고, 세계는 하나의 교육장이다.

해설사·안내자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머 감각, 열정, 자신감, 친절성, 따뜻한 마음과 균형 감각,

책임 있는 행동, 전문성 등이 강조되었다[14,15]. 또 의사소통 능력, 고객서비스 응대방법, 팀의 리더십, 해설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해설의 전문지식, 해설전달능력 등[16]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지식, 전달력과 같은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해설과 안내가 더 강조되고 있다[17]. 그 외 의사소통, 업무능력, 리더십, 전문지식[18] 등도 중요한 요인이다.

2.2 활동이론

우리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만 온전한 존재다. 또 사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다. 따라서 배움과 관련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은 이미 많은 학자에 의해서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 중에서 주목받는 것은 활동이론과 관련된 배움이다[19]. 활동이론은 인간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서 문화역사적 맥락과 모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준다. 활동이론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임의적 행위라기보다 문화적 요인에 의한 배움에 초점을 둔다. 또 이때 발생하는 모순에 어떻게 대처하며 배워 나가는 가를 분석하는 정교한 분석틀이다.

활동이론 발달·전개 과정은 3세대로 분류된다[20-23]. 제1세대는 Vygotsky가 중심이 되어 인지와 학습에서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 Vygotsky는 인간 행동을 주체(subject), 객체(object), 그리고 매체(mediating artifacts)로 구성한다. 매체에는 개념적인 것(언어, 기호 등)과 물리적인 것(연필, 컴퓨터 등)이 포함되며 인간의 학습과 행동은 문화적 도구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2세대는 역사철학자 Leont'ev가 활동이론을 정식화, 이론화하여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제1세대 활동이론에서 한계가 있었던 개인적 학습에 초점을 둔다. Leont'ev는 개인의 활동일 지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세대 모형은 제1세대 모형에 규칙, 공동체, 분업의 요소를 포함한다. 규칙(rule)은 행동과 상호작용에 필요한 원칙이고, 공동체(community)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단체이며, 분업(division of labor)은 공동 과업에 대한 구분과 행위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다. 제3세대는 Engestrom에 의해 확장 학습(expansive learning)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다. 개인에게 학습은 새로운 참여나 활동체계 간 상호 작용을 통해 네트워크, 복합적 관점,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22]는 것이다.

활동이론에서는 활동을 분석단위로 설명한다. 하위 분석 단위에는 주체(subject), 객체(object), 도구(tool), 규칙(rule), 분업(division of labor), 공동체(community)로 구성된다. 주체는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객체는 주체가 의도한 활동을 의미한다. 도구는 주체가 행동하도록 이어주는 매개 장치이고, 규칙은 인간이 특정 형태로 행위 하게 유도하는 문화적 조건이다. 분업은 인간 행동을 분배하는 방식이며 공동체는 활동체계가 속한 집단을 뜻한다. 이 요소들은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행위적 요소와 인간 행위를 발생시키는 맥락적 요소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체, 목적, 도구이고 후자는 규칙, 분업, 공동체 등이다[24-26]. Engeström[27]에 의하면 개인은 공동체 문제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갖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를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목적지향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행위도 한다. 또 목적지향적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체계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때로 유동적일 수 있다. 그 유동성이 인간 행위의 창조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활동이론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활동은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계층구조와 네트워크의 교차점과 같은 것에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활동은 다른 사람의 활동과 환경의 변화들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는다[22,27]. 활동이론에서 개인 활동은 다른 활동체계와 서로 다른 관점이나 목표의 상이성으로 오는 갈등을 일으킨다. 이때 발생하는 내·외재적 변화와 갈등의 부조화를 모순(contradiction)이라 한다. 이 모순은 문제의 원인 혹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와 발달의 원동력이다. 또 특정 활동체계의 내부나 복수의 활동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긴장 관계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모순은 개인을 특정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활동체계 내 혹은 활동체계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활동체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활동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28]이다. 사람과 사회문화가 도구와 기호 같은 인공물에 의해서 매개되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학습이 인지적·심리적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신 개인의 학습은 사회적·문화적 차원임을 보여준다. 활동이론에서는 개인이 사회와 내적으로 연결시키는 문화적·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학습한다[29].

3. 연구방법

3.1 활동체계 분석단위

이 연구에서는 관광경험의 해설사·안내자가 관광경험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관광경험의 분석은 이론과 현장의 실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이론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관광경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의 분석 단위를 설정해야 한다[30]. 관광경험의 활동 분석 단위는 활동의 주체와 주체가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경험의 내용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을 전달하려는 주체와 주체의 목표, 관광객의 상호작용과 관광지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의 극복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서 결과물, 해설사나 안내자의 해설과 안내가 관광경험에서 수행하는 역할 분담, 관광경험의 대상과 프로그램 진행에서의 규칙과 절차, 방법 등, 관광경험이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관광의 인접체계와 관계 등을 포함해야 한다.

Table 1. Activity Analysis Unit

Activity Analysis	Analysis Unit of Tourism Experience
Subject	·Any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and group participating in the guidance and commentary? ·Tourist's class?
Goal	·Any features in the guide and commentary? ·The specific goal of the guide and commentary? ·The delivery system of guide and commentary?
Community	·The composition of groups that play a specific role in the guide and commentary limited? ·The expansion of community?
Division of Labour	·The roles of guide and commentary well divided? ·Change roles within the community?
Method & Rule	·The methods, procedures and rules of the tourism experience? ·The rules be negotiated? ·The common meaning of the rules and composition of the activity?
Outcome	·Information and commentary be shared? ·Guide and commentary contribute to life's problems?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the tourism experience?
Relative to Circumstance	·The flexibility of guidance and commentary system? ·Information systems can be vertical or horizontal?

Table 1에서는 활동체계 분석단위의 주체와 관련된 내용은 해설과 안내를 전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관광자의 계층에 따라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포함한다. 목표에는 해설과 안내의 특정한 목표가 어떻게 도달하려는지, 특별한 방법과 수단, 도구를 포함한다. 공동체에는 관광경험을 돕기 위해 여행일정에 관련된 지역사회, 회사, 단체 등과 어떠한 의견 교환을 주도하는지를 포함한다. 역할분담에는 전체 관광경험의 구성에서 해설사·안내자의 역할이 포함된다. 규칙과 절차에는 관광경험 프로그램의 순서, 방법 및 상호 협력이 포함된다. 결과물에는 전체 관광경험 뿐 아니라 해설과 안내가 관광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포함한다. 인접체계와 관계에는 관광진행과 해설과 안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나 교육 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된다.

3.2 활동체계 대상자

해설사·안내자는 해설 혹은 설명으로 관광경험에 도움을 준다. 과거 해설사·안내자는 관광 안내, 여행서비스 수행 등의 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적 역할, 국가 이미지 제고, 수익창출 등으로 변하고 있다. 관광 안내 및 서비스 수행이라는 기능적·본질적 영역의 전통적·수동적 방식에서 개성화된 여행추구, 체험관광 선호, 개별자유관광객(FIT)의 증대 등의 영향으로 보다 적극적·능동적 방식으로 해설사·안내자 역할이 확대됨을 뜻한다[31]. 따라서 해설사·안내자는 관광자가 겪게 되는 관광지의 이해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광경험의 중요한 변수다. 또 해설사·안내자는 관광자가 어떤 방식으로 관광을 하는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화, 제도 혹은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 해결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설사·안내자가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분석 단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해설사·안내자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 응한 해설사·안내자 선정을 위해서 선행연구자가 개발한 자기 평가표[32]를 활용하였다. 자기 평가 항목은 해설사·안내자가 관광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항을 알고 있는지, 또 더 나은 해설과 안내를 위한 노력으로 기능적 혹은 학습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3가지 요인이고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했다.

Table 2. Self-checklist for Interpreter and Guide

Scope	Item of Self-checklist
Range of Understanding	·Do you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 destination periodically? ·Have you experienced the related travel in advance? ·Do you pay attention to changes in tourist destinations? ·Do you strive to improve guidance and commentary? ·Are they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ourist desire?
Functional Evaluation	·What kinds of media can you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 destination? ·Are you focusing the result of the survey reflected the opinions? ·Have you used any method for evaluating guidance and commentary?
Learning Evaluation	·Do you analyze the purpose, method, and procedure of rules and guides and guide them to tourists? ·Do you check to what extent guidance and commentary affect the traveler's life? ·Do the guide and commentary help tourist understand the destination? ·Are tourists facilitating return visits?

Table 2에서는 관광지 이해와 관련한 평가항목은 관광지의 변화나 새로운 관광상품, 여행자의 변화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광자 욕구를 이해하려는 지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기능적 평가항목에는 관광지나 관광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매체 혹은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포함했다. 학습적 평가항목은 자신의 해설과 안내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혹은 도움을 받는지 등을 포함했다.

관광분야에서 해설과 안내의 역할은 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관광통역안내사(Tour Guide: Inbound tour), 국외여행가이드(Tour Guide: Outbound Tour), 문화관광해설사(Tour Interpreter)로 구분된다. 위의 해설사·안내자는 모두 법률(관광진흥법)에 의해 그 자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해설과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면접에 응한 해설사·안내자는 ①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관광 관련 학과의 졸업자 혹은 해설사(문화관광해설사) 혹은 안내자(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의 교육을 받은 자, ③ 자기평가 항목(1~5점으로 평가)을 이용하여 점수가 4.0 이상인 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에 참여한 대상자는 해설과 안내의 분야에서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에 응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Characteristic of Interviewee

Interviewee	Personal Information			
	Major	Career	Education	Sex
Tour Guide (outbound tour)	tourism	10	univ.	male
Tour Guide (inbound tour)	tourism	15	univ.	female
Tour Conductor (outbound tour)	non tourism	12	univ.	male
Tour Interpreter (domestic tour)	non tourism	13	univ.	female

3.3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4인의 해설과 안내 활동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 활용된 질문은 반구조화 심층 면담의 방법을 활용했다. 면접조사는 전화를 활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했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 윤리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익명성과 응답 자료의 비밀 보장을 안내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 11. 1 ~ 12. 15일까지였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절차는 ①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구성요소에 따라 면접 조사의 내용을 분석 한 후,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②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용어를 질문의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③ 해설사와 안내자의 활동체계 분석단위에 따라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④ 해설사와 안내자의 활동체계 변화 과정에서 목적에 초점을 두고 각 활동체계의 변화 과정과 그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목적에 영향에 따라 명시적 영향이 있는 경우, 영향 정도가 있으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향 정도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로 평가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 면접조사자의 의견을 듣는 연구조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조사자에게 연구 분석을 위한 과정과 질적 연구의 내용을 보여주고 조사대상자의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4. 관광경험의 활동분석

4.1 활동체계의 단위분석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주체는 다양한 활동으로 안내와 해설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인 활동체계를 설명하면 관광에서 해설과 안내를 담당하는 주체는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 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가 담당한다. 국외여행인솔자는 해설과 설명 보다는 안내와 일정 진행에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의 관광지 소개, 안내, 해설과 설명은 관광통역안내사(Tour Guide: Inbound tour, ㉡)가 담당하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지 소개와 해설 및 설명의 역할을 한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에서 관광통역안내사와 유사한 역할은 국외여행 가이드(Tour Guide: Outbound tour, ㉢)가 담당하고 있다. 국외여행 가이드의 주요 없는 관광통역안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주요 사찰, 고궁, 관광지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지의 소개와 설명은 문화관광해설사(Tour Interpreter, ㉣)가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안내보다는 해설과 설명이 주요 역할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4명의 해설사·안내사는 관광지의 규칙을 지키면서 관광지의 특성 혹은 프로그램에 맞는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해설과 안내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관광자의 특성과 여행 일정에 따라 활동체계 주체의 활동이 변화되었다. 또 해설과 안내를 하는 동안의 관광자의 반응과 이해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안내와 해설을 수행했다. 특히 관광자의 질문에는 상세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 외 관광 참여가 많은 관광자는 안내나 소개 보다 해설과 설명에 더 주목하였다. 그러나 단순 방문이나 짧은 일정일 경우 해설과 안내 활동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 관광 참여 계층의 폭에 따라 이해와 학습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목표와 관련하여 ㉠, ㉡, ㉢는 단체 여행자를 대상으로 해설과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안전이었고, 다음으로 관광지의 문화나 프로그램 경험이었다. 반면 ㉣는 특정 장소에서 해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중시하였다. 해설은 ㉠, ㉡, ㉢, ㉣ 모두 관광지 및 관광자의 특징에 따라 시간, 내용의 심층범위를 다르게 수행하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체계의 범위와 관련해서 ㉠, ㉡, ㉢, ㉣ 모두 특별한 흥미와 관심이 많은 관광자인 경우 일상적 해설과 안내와는 다른 경우가 있었다. 박물관 투어에서 큐레이터(㉠, ㉢), 문화기행에서

관련 분야 문학 전문가(㉠, ㉡), 사진 투어인 경우 사진작가(㉠, ㉡), 도예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도예가(㉢, ㉣) 등의 해설, 설명, 평가도 활용하였다. 특수목적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 활동에서는 해설과 안내가 강조된 반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package tour)도 있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공동체는 내부참여자(㉠)와 외부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참여자는 상품기획자 혹은 상품조직자(tour organizer)(㉠, ㉢, ㉣)로 활동체계에서 역할이 가장 컸다. 이들은 관광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적극적으로 관광지 변화를 주목하여 해설과 안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내부 참여자 없이 단독으로 안내와 해설을 하는 경우(㉣)는 공동체 보다는 해설사 개인역량의 중요성이 컸다. 공동체의 경우 외부 참여자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새로운 상품의 등장이나 시장의 변화 등이 간접적으로 활동체계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모든 해설사와 안내자는 여행정보의 공유가 많아지면서 공동체의 영향은 갈수록 많아지는 형편(㉠, ㉢, ㉣, ㉣)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기존과 다른 관광활동의 등장, 새로운 관광자의 유입 등에 따라 관광경험의 활동체계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상품기획자, 여행사, 여행소재 제공업자(principal)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상품기획은 기획자와 여행사의 몫이었고, 구체적 관광활동은 현지의 제공업자가 담당하는 경우 많다(관광지 방문,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 현지의 해설과 안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품기획자, 여행소재 제공업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광활동 중에서 안내의 역할과 해설의 역할 분담(㉢)은 물론이고, 해설에 중점을 둔 역할(㉣)로 구분하여 활동체계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 관광활동의 진행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부분적 관광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우(㉠, ㉢, ㉣)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에 따라 관광경험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모두가 일치했다. 그러나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의 설정은 안내자와 해설자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상품기획자 혹은 상품조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경험 활동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 ㉢, ㉣)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의 관광(option tour)의 경우다. 또한 관광지 사전답사 혹은 초청 투어(fam tour)와 같은 방법으로 관광활동의 변

경을 시도하였다. 반면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특정 유물 혹은 유적에 대해 해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보다 새로운 내용과 방법 도입, 세미나실과 같은 장소 활용 등의 개선에 더 많은 역점을 두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결과물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활동의 사진, 동영상, 기록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 ㉣, ㉣). 이 경우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 ㉣)도 있지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인접체계와 관계는 주변의 변화에 따라 열려 있다. 또 다른 안내·해설 체계(예: 생태자원 해설 등)와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해설과 안내에 대한 인터넷 동영상, 교육 및 참고 자료, 관련 도서(여행안내서, 문화잡지 등)를 활용하고 있었다. 관광분야에서도 관광 안내 및 해설 분야의 공동체에 대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기적 교육과 비정기적 교육, 자격제도 등을 두고 있다.

4.2 활동분석의 시사점

관광경험의 활동체계 분석단위를 조사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주체는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로 관광활동에서 이들의 영향은 매우 컸다. 박물관 투어, 문학관광과 같은 테마상품인 경우 그 해설과 설명으로 주제 역할이 더 컸다. 특히 관광자의 욕구가 점차 참여, 경험 및 학습 지향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설사·안내자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 여행 등에서는 해설사·안내자 역할이 적은 관광활동도 있었다. 활동이론 측면에서 주체의 역할, 해설사·안내자의 역할이 커질수록 관광경험의 강도와 문화적·사회적 학습 내용도 더 올라갔다.

둘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목표는 타지역 혹은 타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안전함과 편안함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단순 안내와 해설의 범위를 넘어서 관광의 진면목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광경험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관광자의 활동이 단순 관람형에서 적극 참여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 체험 중심의 관광상품이 인기가

많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활동체계의 목표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관광경험의 목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해설사·안내자가 지향해야 하는 활동체계의 목표도 관광행태의 변화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

셋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공동체는 내부참여자 와 외부참여자 로 구성되고 관광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내부참여자는 관광경험을 조직하고 안내와 해설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한다. 또 관광 일정을 진행하고 관광경험의 빈도, 강도 등도 결정한다. 외부참여자의 의견, 비평 등도 과거에 비해 그 영향 정도가 커지고 있다. 단순 안내에서 해설로 그리고 점차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관광경험과 관련된 공동체의 영향이 점차 커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광을 하는 중에 의도적이나 아니냐에 관계없이 사회적·문화적 차원의 학습 효과가 있다.

넷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역할 분담은 여행사, 상품기획자, 여행소재 제공업자 등과 역할 분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역할 분담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는 관광경험은 결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며 이런 점은 관광활동 전 과정에 걸쳐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 특히 관광객의 참여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추가 등에서 역할 분담이 비교적 잘 되고 있었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관광경험에서 지향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있었다. 활동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활동체계의 역할 분담인 관광객의 이동, 관광일정의 진행, 관광활동 경험, 안내와 해설 등이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잘 작동하는 것이다.

다섯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에 따라 관광경험이 큰 영향을 받는다. 또 방법과 규칙의 변화에 해설사·안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관광객의 특성, 범위, 성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새로운 시도나 체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해설사·안내자가 관광경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개선의 의지를 갖는다는 점이 활동체계 내 혹은 활동체계 간에는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관광객에게 관광지의 색다른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따른 방법과 규칙은 혼란을 야기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경험으로 작용하여 타지역이나 타국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여섯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결과물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된다. 특히 관광경험 직후 관광객에 의해 감정적·인지적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관광경험이 관광객의 평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기록 등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고 있어서 공유도 활발해지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물은 활동체계 내의 주체, 공동체와 인접체계에 곧 바로 반영되고 있어서 관광경험의 부정적 측면을 줄어뜨리게 하고 있었다. 특히 해설사·안내자에 대한 관광객의 반응은 새로운 해설과 안내의 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 활동이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무엇을 배워 나가는지, 어떻게 개선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습적인 역할에 큰 기여를 한다.

일곱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인접체계와 관계는 주변의 변화에 따라 열려 있다. 관광경험도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고, 해설사·안내자의 해설도 다른 분야의 유용한 방법과 내용,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해설사·안내자는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연수와 교육을 받았고,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안내사·해설사의 활동은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계층구조와 네트워크의 교차점에 존재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과 환경의 변화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선된 관광경험을 가능하게 했다.

5. 결론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견해와 충돌하는 사실과 수없이 부딪히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삶에 대처하는 견해를 바꾼다. 이런 면에서 관광은 기존의 교육방법과 차이가 있는 신선한 교육의 한 방법이다. 관광객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타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관광지에서 겪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배움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관광분야의 안내사·해설사의 활동을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분석단위의 내용과 활동체계 속 분석단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관광경험, 관광경험과 학습, 관광해설사와 안내자의 역할을 체계화하였다. 또 활동이론의 발달 과정, 활동체계 분석단위, 활동이론의 의미 등을 정리하

였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위해 활동체계 분석단위의 구체적 내용, 활동체계 분석 대상자인 선정의 절차와 대상자,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확정하였다. 실증 연구에서는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활동체계 분석단위인 주체, 목표, 공동체, 역할 분담, 방법과 규칙, 결과물, 인접체계와 관계에 대해 면접조사를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을 발견했다.

활동이론 측면에서 안내자·해설사의 역할이 커질수록 관광에서 전달하려는 궁극적 가치도 올라간다는 점, 관광경험이 증가할수록 관광자에게 발생하는 영향의 정도는 커진다는 점, 관광자에게 사회적·문화적 차원의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 활동체계 내 혹은 활동체계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 또 관광경험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해결과정을 관광자 스스로 찾는다는 점, 관광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대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는 점, 모든 관광경험은 관광지에 일어나는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계층구조와 네트워크의 교차점에 존재한다는 점, 또 활동체계 공동체의 활동과 환경의 변화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관광경험의 해설과 안내의 활동체계는 각 분석단위와 단위는 물론이고 단위 안에서 상당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 이 변화는 자신이 살던 곳과 방문한 곳으로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관광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 새로움을 접한 관광자에게는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타성이나 진부함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어 다양한 경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출발한 관광자일지라도 관광을 하면서 현재의 역사, 전통, 문화는 물론이고 사회 상황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관광경험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학습과 다른 새로운 학습의 방법으로 각광을 받는다. 과거에 유행했던 그랜드 투어(Grand Tour)나 최근에 회자되는 유목여행의 사례가 새로운 형태의 참 배움이 일어나는 증거다.

둘째, 관광 일정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전달하는 정보·지식에 따라 관광경험의 범

위, 내용, 강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들이 전달하는 전문적 지식은 일상을 떠난 관광자에게 일상과 다른 강도 높은 학습의 효과를 준다. 현지에서만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적 경험, 문학·예술·자연 관광에서 듣게 되는 전문 지식, 새로운 음식을 맛보거나 풍경을 감상하는 것, 관광지에서 마주치는 현지인과 만남은 색다른 학습의 기회를 준다. 이 같은 관점에서 관광은 상상만으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것을 배우게 한다.

셋째, 관광자는 누구나 관광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기준에 갖고 있던 자신의 활동 패턴과 다른 관점이나 목표의 상이성으로 오는 갈등을 겪는다. 그 범위는 언어, 인종, 종교는 물론이고 삶의 양식이나 사회체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같은 모순은 오히려 변화와 발달로 관광자의 시야를 넓히거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신이 살던 곳과 관광지 사이에 있는 모순이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관광자를 특정 사회와 연결시킨다. 또 활동체계 내 혹은 활동체계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관광자는 변화한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해설사·안내자의 관광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활동체계, 활동체계 단위간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해설사·안내자가 관광자에게 제공하려는 관광경험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의 학습변화를 검증할 수 없었던 점이 한계로 남는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ungwoon University in 2020.

REFERENCES

[1] Z. S. Han. (2011). Erudition: New Paradigms for the Future Education.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1(1), 1-8.

[2] E. Cohen. (2002). Authenticity, Equity and Sustainability in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0(4), 267-276.
DOI: 10.1080/09669580208667167

- [3] J. E. Otte & J. R. B. Ritchie. (1996). The Service Experience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17(3), 165-174.
DOI: 10.1016/0261-5177(96)00003-9
- [4] S. H. Lee & M. J. Oh. (2017).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Experience, Visiting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Traditional Korean Villag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9), 33-46.
DOI: 10.21298/IJTHR.2017.09.31.9.33
- [5] M. J. Lee. (2010). The Meaning of Erudition and Sudden Enlightenment From the Humanities Point of View. *The Journal of SEC*, 2(3), 1-16.
- [6] S. H. Shim. (2007). A Study on the Meaning of Learning in the Perspective of Pragmatism.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7. 28, 49-81.
- [7] J. Kim, J. R. B. Ritchie & B. M. McCormick. (2012).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Memorable Tourism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1), 12-25.
DOI: 10.1177/0047287510385467
- [8] V. W. S. Tung & J. R. B. Ritchie. (2011). Exploring the Essence of Memorable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4), 1367-1386.
DOI: 10.1016/j.annals.2011.03.009
- [9] T. Fernandes, M. Cruz. (2016). Dimensions and Outcomes of Experience Quality in Tourism: The Case of Port Wine Cellars.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31(July), 371-379.
DOI: 10.1016/j.jretconser.2016.05.002
- [10] J. H. Chun & Y. W. Lim. (2016).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Interpretation Quality and Tourist Satisfaction in Ecotouris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520-527. DOI: 10.5762/KAIS.2016.17.2.520
- [11] B. Rabotić. (2010). Tourist Guides in Contemporary Touris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urism And Environment, *Philip Noel-Baker University, Sarajevo, Bosnia & Herzegovina*, 4-5 March, 353-364.
- [12] H. Y. Yun & D. S. Kim. (2004). The Development of Tour-Guide Training Program for Forest-Ecotourism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8(4), 41-51.
- [13] C. O. Park & Y. S. Kang. (2014)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the Needs of Parentson Forest Experience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3616-3624. DOI: 10.5762/KAIS.2014.15.6.3616
- [14] S. J. Lee. (2006). A study of the Influence of Cultural Heritage Commentators on Tourist Satisfacion and Intentions to Revisit or Recommend Cultural Heritages. *Tourism Research*, 22, 117-137.
- [15] J. H. Ahn & H. S. Park. (2016). Interpretation of History Content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Education by Culture Tourism Interpreters, *Sa Chong(The Historical Journal)*, 88, 211-243.
- [16] H. Seo. (2012). A Study on Korean Culture & Tour Narrator's Capabilit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4(6), 137-154.
- [17] S. K. Kim. (2010). Influences of Culture and Tourist Guides' Ability on The Tourist Satisfaction and Destination Loyalt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2(2), 97-115.
- [18] S. H. Kim, & Y. D. Huh.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pacity of Cultural Tourism Commentator's, Tourism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1(8), 21-37.
DOI: 10.31336/JTLR.2019.3.31.3.43.21.
- [19] M. H. Shon. (2004). Social Constructivism and its Implication on the Study of Classroom Lesson: A Methodological Investigation. *Anthropology of Education*, 7(1), 37-72.
- [20] M. Cole & Y. Engeström. (1993). A Cultural-historical Approach to Distributed Cognitio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Considerations*, 1-46.
- [21] Y. Engeström. (2007). Enriching the Theory of Expansive Learning: Lessons From Journeys Toward Coconfiguration. *Mind, Culture, And Activity*, 14(1-2), 23-39.
- [22] H. Park. (2019). Revisiting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CHAT) as a learning theory and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 of Learning in CHA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0), 585-612.
DOI: 10.22251/jlcci.2019.19.10.585
- [23] B. R. Park & J. Y. Ha. (2019). HRD Consultants'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System :Focused on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1(4), 1-28.
DOI: 10.18211/kjhrdq.2019.21.4.001
- [24] Y. Engeström. (2001). Expansive Learning at Work: Toward an Activity Theoretical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4(1), 133-156.

DOI: 10.1080/13639080020028747

- [25] M. J. Han, C. H. Yang & T. H. Noh. (2014). An Analysis of Teaching Strategies of Science Teacher's Teaching in Science Museu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4(6), 559-569.
- [26] Y. R. Kang. (2014). Analysis on Behaviors of Using Calculator Based on Developmental Stage of Proportional Reasoning of Gifted Elementary Students. *School Mathematics*, 16(1), 39-56.
- [27] A. Sannino & Y. Engeström. (2018).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Founding Insights and New Challenges. *Cultural-Historical Psychology*, 14(3), 43-56.
DOI: 10.17759/chp.2018140304
- [28] I. T. Kwon. (2014).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Cities Using a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4(2), 1-29.
- [29] J. Y. Park, S. M. Lee & B. J. Yi. (2011). Looking Museum through the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6(4), 71-85.
- [30] S. Y. Hwang & N. S. Kim. (2014). Analyzing Practicum Act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1(1), 141-170.
- [31] J. K. Oh & H. T. Lim. (2018). A Study on the Media Perception Change toward Tour Guide : Focused on Content Analysis through News Article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0(8), 39-55.
DOI: 10.31336/JTLR.2018.08.30.8.39

전 주 형(Joo-Hyung Chun)

[정회원]



-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박사:관광경영전공)
- 1997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관광품질,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 E-Mail: amazingclub@naver.com